

'96 국제사료곡물 수입 및 가격전망



문철명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1. 국제곡물시장의 가격동향

'94년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은 전세계 곡물교역국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천정부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해들어 첫장이 열린 지난 1월 3일 미국의 시카고 곡물거래소(CBOT)의 3월 인도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뷰셀(BU)당 3.74불로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난 80년 미국 옥수수 생산지역의 대열파로 최고가격을 기록했던 1981년 1월의 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후 국제곡물가격은 파종기에 들어선 남미의 기후조건과 수입국의 구매동향,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큰손들의 투자패턴에 따라 등락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뷰셀(Bu)당 3.



65불, C&F당 수입가격으로는 187~188불선에서 가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 사료곡물시장의 담당자들과 곡물교역국들은 과연 이같은 곡가상승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들 곡물들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곡물을 운송하는 해상운

임도 상승하고, 이들 곡물을 대체할 여타 곡물들의 수출여력도 바닥난 실정이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상승폭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특히 배합사료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미산 옥수수만해도 80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계는 지금까지는 상당량의 옥수수와 호밀, 소맥등을 조기확보 함으로써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더이상 감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하여 사료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12월 21일 전농의 경우 금년 1/4분기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전축종 평균 약 톤당, 2,500엔 인상 발표함으로써 95년 4/4분기에 비해 약 7% 상승하였다.

지난 10여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추세를 보여주고 있던 국제곡물시장이 이같이 폭등하고 있는 배경은 지난해 미국의 파종면적의 감소와 파종후 생육기간과 수확기간중의 일기불순으로 인한 생산감소와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곡물수입국물의 수입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국들의 곡물공급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즉, 과거에도 3-4년 주기로 미국의 옥수수 생산증감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급등락을 경험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낮은 가격의 중국산 옥수수와 EC, 캐나다, 호주 등의 사료용 소맥 및 호밀 등의 대체구매로 가격안정을 기해나갈 수가 있었으나, 최근의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상

세계소비량은 전년도 수준보다 다소 줄은 8억 3,050만톤으로 예상되며, 재고량은 8,600만톤으로 지난 94/95년도에 비해 약 36% 떨어진 상태이다. 이중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량은 2억 940만톤으로 26.5% 감소하였고, 소비량은 1억 8,050만톤으로 13.2% 줄고, 재고량은 약 2,000만톤으로 지난 94/95년의 4,530만톤에 비해 62.7% 감소함으로써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승의 배경에는 이들 생산국들의 수출중단은 물론 오히려 수입국으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가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5년 부터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곡물수출국들이 자곡물물의 수출시 보조해주던 수출보조금이 중단되고, 지난 10여년동안 안정세를 보여오던 곡물 해상운임과 수출국의 물류비용(창고비, 내륙운송비 등)마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여서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2. 국제사료곡물 수급 동향

지난 1월에 미농무성(USDA)

이 발표한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95/96년도 세계사료곡물 생산량은 7억 8,380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9.1% 가량 감소하였다.

세계소비량은 전년도 수준보다 다소 줄은 8억 3,050만톤으로 예상되며, 재고량은 8,600만톤으로 지난 94/95년도에 비해 약 36% 떨어진 상태이다. 이중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량은 2억 940만톤으로 26.5% 감소하였고, 소비량은 1억 8,050만톤으로 13.2% 줄고, 재고량은 약 2,000만톤으로 지난 94/95년의 4,530만톤에 비해 62.7% 감소함으로써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사료곡물 생산량이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 것은 지난해 미국의 기상여건 악화와 함께 지난 수년간 호주, 남미지역 등의 일기불순으로 인해 사료곡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의 장기적인 곡가하락 및 안정으로 인해 곡물수출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농업경작 한계지에 대한 개발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사료곡물의 대표적 품목인 옥수수의 수급불안정은 더욱 극심하여 95/96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4억 9,860만톤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하였고, 소비량은 거의 줄지 않음에 따라 세계 옥수수재고량은 약 5,760만톤으로 94/95년의 9,190만톤에 비해 약 37.3%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95/96년 옥수수 생산량이 1억 8,730만톤으로 전년대비 27.1% 감소하였고, 소비량도 13.1% 감소할 전망이다, 재고량은 94/95년에 비해 약 67.4%나 감소한 1,290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것은 지난 '94년이래 중국의 옥수수 수출중단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의 옥수수 수입수요가 미국으로 집중되게 되었으며, 지난해 미국 콘벨트지역의 일기불순으로 인해 95/96년도 미산 옥수수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옥수수에 대한 대체곡물로서 이용되던 사료용 소맥, 대맥, 호밀, 귀리 등 기타 곡물 역시 수출여력이 상실됨

에 따라 미산 옥수수에 대한 수입수요가 높고 재고하락은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사료곡물과 옥수수등의 수급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국제사료곡물가격은 사상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 향후 국제사료곡물 가격전망

향후 국제사료곡물 가격전망과 관련하여 우선 주요 변동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적인 강세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강세전망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고 있는데,

첫째, 금년 세계사료곡물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9.1% 가량 감소한 7억 8,380만톤으로 예상되어 지난 10년간의 평균생산량(808.6백만톤)보다 약 3.1% 가량 낮은 수준이고, 재고량도 세계 소비량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37.3% 감소되었으며 10년

간의 평균재고량에 비해서도 46%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지난 74/75년이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그동안 주요 수출국에서 근래들어 산업경제발전과 함께 국내소비량 증가현상에 따라 옥수수, 대두, 쌀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렸고, 곡물수입국으로 전략하였다.

셋째, 곡물해상운임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해상운임은 지난 10여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 95년 이후 세계경기의 호전 및 건화물 운송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난 수년동안 신조선건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급격한 상승을 보여 최근 파나마스(55,000톤)급 PNW선임이 1월현재 16불로 94년 3월에 비해 45% 상승하였고, GULF 또한 29불로 94년대비 45%(9불) 상승하였다.

넷째, 지난해 WTO출범이후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내륙 수송시 그동안 지불되었던

〈표 1〉 사료곡물 수급동향

(단위 : 백만톤, %)

	생 산 량			소 비 량			재 고 량		
	95/96	94/95	증감률(%)	95/96	94/95	증감률(%)	95/96	94/95	증감률(%)
세계	783.8	862.4	-9.1	832.1	850.2	-2.1	86.0	134.3	-36.0
미국	209.4	284.9	-26.5	180.5	207.9	-13.2	16.9	45.3	-62.7

〈표 2〉 옥수수 수급동향

(단위 : 백만톤, %)

	생 산 량			소 비 량			재 고 량		
	95/96	94/95	증감률(%)	95/96	94/95	증감률(%)	95/96	94/95	증감률(%)
세계	498.6	555.3	-10.2	532.9	535.4	-0.5	57.6	91.9	-37.3
미국	187.3	256.6	-27.1	159.6	183.6	-13.1	12.9	39.6	-67.4

보조금을 철폐함에 따라 곡물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지난해 주요곡물 생산국들의 흉작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세계수요량이 미국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브라질 뿐만아니라 아르헨티나 대두생산지역에 그동안 지속되는 고온건조 기후로 대두감산이 우려되었다. 이와같은 상승요인에 반하여 금년도 상반기 이후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을 되찾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약세요인으로는

첫째, 금년도 전반적인 세계 사료곡물 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금년 주요생산국들의 곡물 파종면적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수입국들의 원료 구매가 일단락될 경우 당분간은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본의 경우 2월에서 3월 선적물량은 완전히 확보하였고 4-6월선적 기준은 85~90% 확보하였으며 7-9월 선적물량은 10~20% 정도 구매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도 일본의 옥수수 소비량은 세계옥류가격 상승과 국제 사료곡물 가격상승에 따라 작년도 1,600만톤 소비수준보다 2~3%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

〈표 3〉 국제곡물 가격동향

(단위 : C&F, US\$/톤)

	93년	94년	95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	96년 1월현재
옥수수 (미국)	129	132	139	143	149	159	167	179	188
소맥 (캐나다)	107	114	130	135	145	160	170	190	191
대두 (미국)	278	273	252	257	260	275	282	310	310
대두박 (미국)	270	255	236	241	248	266	281	309	312

망된다.

대만의 경우는 주로 현물구매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 다소 구매가 늦은 실정이므로 현재 2-3월초 선적까지 확보한 실정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옥수수 수확기대에 따라 현재 관망을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금년 2월산적 물량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셋째, 미국의 농업법안의 개정에 따라 금년 미옥수수의 파종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농업의 보조금 삭감원칙하에 100% 작부를 자유화심으로서 농부들은 향후 곡가향방에 유리한 작목으로 경작할 것으로 보여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변동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세계사료곡물 시장은 약세요인보다는 상승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적인 강세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식부면적 예상과 곡물생산이 어

느정도 전망될 시점인 금년 4월까지는 지속적인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주요생산곡물의 생산증가와 선입약세등에 따라 다소 약세분위기도 예상되나 가장 큰 가격변수는 역시 세계의 기후상황과 주요국의 수입동향으로 이에 따라 향후 곡물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파종이 종료된 남반구지역의 기상조건과 주요수입국의 구매동향이 주요 가격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구매단체들은 주요 수입국들의 구매동향과 기상상황을 주시하면서 조금씩 구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의 곡가 폭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정책적으로 해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전면실시와 전사료원료의 수입자유화 및 관세영세율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